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Editions and the Illustrations of *Buljungsimdharanikyung*

우 진 웅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왕실발원본과 성화본의 비교 |
| 2. 『불정심다라니경』의 구성과 간행 | 4.1 형태적 특징 |
| 2.1 구성과 내용 | 4.2 도상 |
| 2.2 『불정심다라니경』의 간행과 전래 | 5. 신광사본 삽화의 특징 |
| 3. 『불정심다라니경』의 현전 판본 | 6. 결 론 |
| 3.1 고려간본 | <참고문헌> |
| 3.2 조선간본 | |

<초 록>

본고는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 밀교신앙의 성행과 함께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은 고려시대에는 권력층 위주의 호신용으로 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1485년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간행된 왕실발원본이 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여러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하였다.
2.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은 크게 왕실발원본(1485)과 독자적으로 간행된 판본이 있으며, 해탈암본(1561)은 왕실발원본 계열의 판본이다.
3. 성화본과 왕실발원본은 경문의 배열과 구성이 같고, 도상이 유사하다. 또한 간행시기가 10년 이내로 근접하다. 특히 郭 안의 기록이 일치하는 점 등은 왕실발원본의 발문에서 언급한 ‘唐本을 본뒀다’는 기록의 唐本이 成化本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신광사본(1711)에 수록된 삽화는 왕실발원본을 모방하여 더욱 간략하게 변형되었다. 특히 음영을 넣은 의복 표현, 사물, 여백 등의 간략화가 특징이다.

要語: 『불정심다라니경』, 성화본, 왕실발원본, 인수대비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4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editions and its illustrations of *Buljungsim-dhara nikyung* (佛頂心陀羅尼經), we could know the facts as follows ;

1. *Buljungsim-dharanikyung*(佛頂心陀羅尼經) is mostly published by the elite or power structure in Koryo(高麗) Dynasty with the purpose of their self-protection. In the early of the Chosun(朝鮮) Dynasty,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with the sponsor of Insoodaebi(仁粹大妃) at royal family in 1485. The rest editions of Chosun(朝鮮) were published one at the temple in various area.
2. The editions of *Buljungsim-dharanikyung*(佛頂心陀羅尼經) is generally divided into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s(王室發願本), Korean annotated ones so forth. The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s(王室發願本) is printed in 1485 and 1561 at Haetalam(解脫菴) has same series.
3. Sungwhabon(成化本) and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s(王室發願本) has The arrangement, the position of the text and Illustrations has similar pattern. Also the two books has the same number of line at one page and the number of character per line. So we could estimate the publication date is in the scope of 10 years between two books. Especially, the same pattern of the record in four border of two books is the key ground that 'edition of Tang periods(唐本)' is the right the book of sungwha periods, so called sungwhabon(成化本).
4. The edition of Sinkwang temple(新光寺本) in 1711 has more simple pattern in the illustrations. Especially in the area of clothes, the stuff, blank space of the illustrations. It showed us that simplification of illustration is occurred during the re-engraving process likewise the same pattern in the content character.

Key words: *Buljungsimdharanikyung*, Seungwha edition,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 Insu-daebi

1. 서론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하 ‘佛頂心陀羅尼經’)은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어 이것을 읽거나 항상 소지하면 災厄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명한 밀교경전이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구성은 상중하의 3권으로 이루어져 각 권마다 불보살을 비롯하여 등 여러 인물들이 나와 다라니경을 지니고 다니는 이유와 그 영험력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불정심다라니경』을 믿는 신앙은 밀교신앙의 보급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행해졌으며, 경전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간행된 판본이 전해진다. 대표적인 판본인 崔忠獻 3父子의 기록이 있는 고려 小字本과 仁粹大妃의 발원으로 1485년 간행된 왕실발원본 등은 『불정심다라니경』에 대한 신앙심이 권력 계층에서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편찬과 전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대체로 중국에서는 10세기말부터 11세기초 이전에는 이미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3세기 초 이전에 경전으로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불정심다라니경』은 여러 종류의 판본이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각 판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판본에서는 본문의 하단에는 경문, 상단에는 경문의 내용을 도상화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어 불교미술사, 판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별 계열에 대하여 분석하고, 여러 판본 중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을 중심으로 하여 도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왕실발원본의 발문에 기록된 “(왕실발원본은) 唐本을 본떴다”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정심다라니경』(1477, 이하 成化本)과의 비교를 통하여 1485년에 간행된 왕실발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불정심다라니경』의 구성과 간행

2.1 구성과 내용¹⁾

『불정심다라니경』의 구성은 맨 앞에 水月觀音圖가 위치하고, 수월관음도의 좌측에 있는 位牌에는 ‘宗晁磐石 / 王道弥隆 / 惠日長明 / 法周沙界’라 기록된 牌記가 있다.

본문은 卷上 ‘佛頂心陀羅尼經’, 卷中 ‘佛頂心療病救產方’, 卷下 ‘佛頂心救難神驗經’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卷首題는 다르지만 卷末題는 ‘佛頂心經’으로 동일하다. 각 장의 하단에는 한문으로 된 경문이 위치하고, 상단에는 경전의 내용을 도상화한 삽화가 실려 있다. 삽화에는 경문의 내용을 축약 설명하거나 장소를 의미하는 기록이 사각으로 된 郭 안에 표기되어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각 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卷上の 권수제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으로, 『불정심다라니경』이 어떤 경전이고,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²⁾ 卷中の 권수제는

1) 이하 구성과 내용은 왕실발원본(1485)을 기준으로 함.

2) 각 판별 삽화 내용: 제1장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에게 일체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를 청하는 내용. 제2장 석가모니가 말하여 관세음보살이 法座로부터 일어나서 합장하고 娑陀羅尼를 말하는 내용. 제3-4장 관세음보살이 다라니를 외우니 하늘이 寶花를 뿌리고, 선남자선여인이 神妙章句를 들으면 죄가 없어지며, 큰 죄를 범하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 제3장은 ‘陀羅尼經’이라 쓰인 위패에 일체중생들이 기도하는 내용. 제4장은 살생으로 인해 아버지옥으로 가는 내용. 제5장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불정심다라니경』을 보고, 사람을 청하여 文字章句를 써서 受持 讀誦하고, 매일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워 헌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입지 않는다는 내용. 제6장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거나 蓮花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사람을 청하여 이 다라니경을 써서 공양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 제7장 꿈이 괴이하거나 어려운 병이 있을 때 이 다라니를 외우면 관세음보살이 大神力과 함께 金剛密迹을 圍遶하여 하고자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내용. 제8장 일체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고요한 곳에 눈을 감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헌하면서 다라니를 일곱 번 외우면 모두 이루어지고, 머무르거나 누울 때 항상 부처가 나타나 죄를 다 소멸시킨다는 내용. 제9장(前) 선남자선여인이 아침에 부처를 향해 향을 피우고 다라니경을 외워 천편이 차면 관세음보살이 阿難이 되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내용임.

‘佛頂心療病救產方’으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때 이 경을 외우면 무사히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다라니를 외우면 어떠한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³⁾

卷下의 권수제는 ‘佛頂心救難神驗經’으로 다라니를 지니면 신통력이 있어 영험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몇 개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였다.⁴⁾

- 3) 각 판별 삽화 내용: 제9(後)-10장 여인들이 출산시 分別하지 못하면 귀신이 어지럽게 하므로 고통스러울 때 朱砂로 다라니와 秘字印을 쓰면 순산하고, 아기가 (배 안에서) 죽어 아기와 어미의 생명이 둘 다 위험하면 頂輪王의 秘字印을 쓰면 죽은 아기를 밀어내고 빨리 물에 버리면 어미의 목숨은 구할 수 있다는 내용. 제11장 아이를 임신한 여자는 개고기와 鮮魚, 새를 먹으면 안되고, 寶月智嚴光陰自在光佛을 念해야 하고, 선남자선여인의 몸에 병이 생기면 다라니와 秘字印을 朱砂로 써서 지니면 좋아진다는 내용. 제12장 善男子 善女人이 父母·兄弟·眷屬 등이 命終할 때 다라니를 써서 재로 만들어 흠에 섞여 (亡者의) 심장에 놓으면 다라니의 威力를 입게 되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다라니를 마음에 그옥이 사되어 부처를 念하면 가난하고 굶주림이 없어진다는 내용. 제13장 이 경을 供養하면 魍魎 鬼神이 해치지 못하고 달아난다는 내용임.
- 4) 각 판별 삽화 내용: 제14-16장(前) 『불정심다라니경』의 효험을 설명. 첫 번째는 闍賓陀國에 병이 유행하자 관세음보살이 白衣居士가 되어 병을 구하고, 다라니경 3권을 써서 공양하게 함. 두 번째는 派羅奈國에 사는 長者가 15세에 병으로 목숨이 위태롭자 사람을 청하여 『불정심다라니경』 3권을 써서 부처를 향해 향을 피워 念하여 목숨을 구했고, 長者는 구슬과 금을 팔아 천권을 써 공양했다는 내용. 제16장(後)-17장 한 여인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이 여인은 『불정심다라니경』을 항상 지녀 전생의 원수가 해치지 못하나 여인이 낳은 두 번째 아기는 태어난 지 두 해가 가기 전에 죽으므로, 죽은 아기를 물에 가서 버렸다는 내용. 제18장 여인이 (죽은 아기를 물에 버리고) 물가에서 울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스님이 되어 나타나 神通力으로 한 곳을 가리키니 夜叉가 나타나 (여인은) 『불정심다라니경』을 지녀 善神이 밤낮으로 옹호하는 까닭에 죽이지 못했다 하고 아치는 물에 잠겨 사라졌다는 내용. 제19-20장(前) 여인이 (남자의 몸이 되고자) 눈물을 흘리며 보살에게 禮拜하고, 의상을 팔아서 사람을 請하여 다라니 천권을 만들어 더욱 受持하였기에 97살에 죽자 秦國에 가서 남자의 몸이 된 일화와 함께 선남자선여인이 경전 3권을 써서 공양하면 金剛密迹과 阿吒鉤羅羅神이 호위한다는 내용. 제20(後)-21장 욕심 많은 官人과 항상 『불정심다라니경』을 지니는 스님의 일화를 수록한 내용. 그 일화는 懷州의 어느 縣令이 上官의 행차를 만들 돈이 없자 普光寺에 가서 돈을 빌려 沙彌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던 중) 官人이 욕심을 내어 沙彌를 자루에 넣어 물에 던졌다는 내용. 제20장(後)은 관인이 普光寺를 찾아가서 스님에게 청하여 돈을 빌리는 내용. 제22장(官人이 자루에 넣어) 沙彌를 물에 던졌으나 沙彌는 예전부터 『불정심다라니경』을 지니고, 공양을 거르지 않아 (沙彌는) 죽지 않았고, 沙彌가 懷州 관인 앞에 찾아가니 관인이 놀라워하며 자신의 죄를 懺悔하기 위해 제 돈을 시주해서 천 권의 『불정심다라니경』을 만들었다는 내용임.

2.2 『불정심다라니경』의 간행과 전래

『불정심다라니경』은 대표적인 밀교 다라니경 중 하나이다. 밀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 주술신앙의 형태로 고려 중기까지 성행하고 정착되었다. 고려시대의 밀교신앙은 국가적 재난 등 여러 가지 혼란을 佛力에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 수단으로 밀교가 널리 인식되어 사찰이나 권력층 주도에 의한 다라니경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왕실발원이나 간경도감에서와 같이 왕실이나 국가 주도의 밀교경전의 간행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중후기로 넘어가면 간행의 주체는 주로 사찰이었다.

인쇄술의 발달과 밀교의식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진언집과 다라니경 간행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국문번역이나 올바른 誦呪를 기하기 위한 불교의식집의 정비 등도 기존의 불교신앙 형태가 밀교화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⁵⁾ 당시 불안정한 사회배경, 외적 침입, 질병의 만연 등 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초월적인 존재에 귀의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연히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밀교신앙과 밀교의식이 성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불교가 지닌 대중교화의 한계, 승려 부족 등의 원인도 밀교경전의 간행 요인이었다.⁶⁾

밀교의 수행방법으로는 ‘三密’이 있다. 삼밀이란 身口意로 통한다. 손을 비롯한 몸(身)으로 여러가지 印을 만들고, 입(口)으로 진언을 외우며, 마음(意), 정신상의 모든 정신활동을 意密이라 한다. 진언 및 다라니는 삼밀 중 口密(語密)에 해당하며, 구밀을 책으로 만든 것이 진언이나 다라니경이다. 이것을 외우고 문자를 보면 공덕이 생기고, 소원의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정심다라니경』 역시 구밀을 성취하기 위해 간행된 경전으로 이것을 몸에 지니거나 외우면 어떠한 재액도 막을 수 있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불정심다라니경』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처음 편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5) 洪潤植, “朝鮮時代眞言集의 刊行과 儀式的 密敎化,” 『韓國佛敎史의 研究』 (서울: 敎文社, 1988), 279.

6) 李逢春, “朝鮮前期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제5집 (한국불교학회, 1980), 62-63.

현존하는 最古의 『佛頂心陀羅尼經』은 南宋本(孝宗年間, 1162-1189)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중국 浙江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전 판본으로 보면, 고려 고종연간(1213-1259) 최충헌 3부자의 기록이 있는 小字本 등 몇 종이 간행되어 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전래되어 간행되었을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1485년 왕실발원본을 시작으로 하여 10여종 내외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3. 『불정심다라니경』의 현전 판본

『불정심다라니경』은 고려시대 말 무렵부터 간행되어 조선시대에는 왕실발원본을 비롯하여 평안도 解脫菴, 전라도 熊帖寺, 경상도 奉佛庵, 경상도 梵魚寺, 전라도 新光寺, 경기도 寶晶寺, 경기도 三聖菴 등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표 1>과 같이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은 13세기 초에 간행된 고려시대 판본과 조선시대 판본 등 약 10여 종이 전해지고 있다.

<표 1> 『불정심다라니경』의 현전 판본

판본	판식	소장처
高麗小字本 (최충헌 삼부자)	上下單邊, 匡高 4.9-5.0, 1折 5行9字, 無魚尾	국립중앙박물관
高麗小字本 (최우기록)	上下單邊, 全 66行 13-15字, 無魚尾	봉림사
王室發源本 (1485)	四周雙邊, 21.5×15.0, 有界, 8行9字, 上下向黑魚尾	호림박물관, 연세대
	四周雙邊, 21×14.7, 有界, 8行9字 上下向黑魚尾	서울대
解脫菴本 (1561)	四周雙邊, 20.3×14.9, 有界, 8行9字, 黑口, 內向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熊帖寺本 (1570)	四周單邊, 17.1×10.7, 有界, 8行16字, 黑口, 內向黑魚尾	고려대도서관
奉佛庵本 (1631)	四周單邊, 19.6×14.9, 有界, 8行16字, 內向1-2葉花紋魚尾(諺解 7/17, 黑口, 內向黑-2葉花紋魚尾)	서울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판본	판식	소장처
梵魚寺本 (1642)	四周單邊, 19.0×15.1, 無界, 9行16字, 內向1-2葉花紋魚尾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등
新光寺本 (1711)	四周單邊, 20.8×15.0, 有界, 8行9字, 內向2葉花紋魚尾	동국대
寶晶寺本 (1871)	四周單邊, 16.5×10.3, 有界, 7行14字, 上下向白魚尾(木活字本)	동국대
三聖菴本 (1881)	四周雙邊, 16.6×11.2,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

3.1 고려간본

3.1.1 高麗 小字本⁷⁾ (崔忠獻 3父子 기록)

고려말 최충헌 3부자의 기록이 있는 판본으로,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용한 호신용 다라니경이다.

經의 구성은 『불정심다라니경』의 卷上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卷中 ‘佛頂心療病救產方’, 卷下 ‘佛頂心救難神驗經’로 되어 있으며, 기타 ‘一字頂輪王陀羅尼’, ‘自在王治溫毒陀羅尼’, ‘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권말에는 <特爲晋康侯崔 兼弟男大內侍將軍瑀 殿中內給事 珣危難頓消福壽無彊之願>라 기록되어 崔忠獻(1149-1219), 崔瑀(?-1249), 崔珣(?-1230) 3부자의 安寧과 壽福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간행연대는 崔忠獻이 晋康侯에 책봉된 시기인 1206년(高麗熙宗 2)에서 1219년(高麗高宗 6) 사이이다.

표지에는 護法善神像, 후표지에는 七層寶塔이 鍍金한 銀製의 內蛤에 새겨졌다. 후표지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원형 고리는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용한 휴대용 다라니경임을 보여준다. 邊欄은 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匡高는 4.9-5.0cm로 1折 5行에 8-12字이다. 經의 전체 크기는 5.3×27.5cm, 접었을 때의 크기는 5.3×3.6cm의 소형 절첩본이다.

7) 보물 제691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1.2 高麗 小字本⁸⁾ (崔瑀 기록)

고려 고종연간(1213-1259) 사이에 판각하여 간행한 3장의 낱장이다. 권말에는 一字頂輪王陀羅尼, 自在王治溫毒陀羅尼의 다라니와 살담자가 있으며, 그 뒤에 2행에 걸쳐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이 기록 중 제1행의 몇 글자는 부분적으로 판독이 가능하지만 제2행은 희미하여 판독할 수 없다.

판독 가능한 문자를 보면 “聖壽萬歲 清河相國福壽無疆 …”이라 표기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清河相國’은崔瑀의 관직이었다. 따라서 최우의 추종자가 최우의 壽福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던 것이다. 1387년(우왕 13)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보물 제1126호, 국립중앙박물관) 卷末의 跋文에도 “1256년(고종 43) 清河相國 崔瑀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하였다”는 底本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3.1.3 1306년 고창군 부인 오씨 발원 『佛頂心呪經』⁹⁾

상하에 고리가 달린 금속으로 된 갑 속에 들어 있는 작은 호신용 수진본이다. 앞서 언급한 최충헌 3부자 기록이 있는 高麗小字本(3.1.1)과 흡사한 모양이다. 卷首에는 변상도 1면이 있고, 각 면당 4행, 梵字 6자를 배열하고 漢字로 쓰여진 呪文의 제목과 呪文의 음을 悉曇字로 번갈아 병기하고 있다.

발원문에는 “特爲兩親福壽無疆兼及己身災厄頓消 / 常作佛事普及法界 / 生沒含靈仗次勝因俱成正覺者 / 大德十年二月日刻施主高敞郡夫人吳氏誌”라는 기록이 있어 부모의 수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고창군부인 吳氏가 1306년에 발원하여 새긴 것이다.¹⁰⁾

기타 현존하는 最古의 판본은 중국 南宋-孝宗年間에 간행된 판본¹¹⁾으로 권수

8) 보물 제1095-8호(화성 봉림사 소장).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0) 남권희, “한국기록문화에 나타난 진언의 유통,” 『밀교학보』 제7집(2005), 109-110.

11) 浙江省 杭州市 浙江省博物館 소장.

에는 경전 내용을 압축한 도상이 있으며, 본문은 경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권말에 1172년(南宋 乾道 8) 葉岳이 불경을 시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판본을 조선 초기 번각한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3.2 조선간본

3.2.1 왕실발원본과 그 계열

3.2.1.1 王室發願本

왕실발원본은 1485년(成宗 16) 成宗의 어머니인 仁粹大妃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같은 판본인 호림박물관본(보물 1108호), 서울대 일석문고본 등 2종이 전해진다.

이 책의 판식 형태는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1.5cm, 가로 15cm이며, 한 면은 8行 9字로 된 線裝本 형태이다. 관심부분은 版心題가 없이 張次만 기록되어 있고, 魚尾는 上下向黑魚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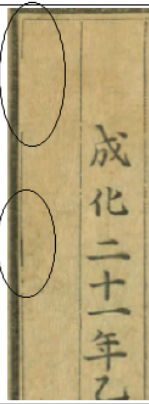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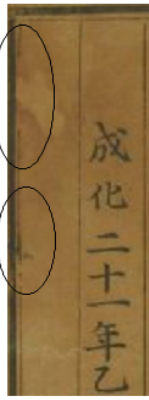
어미와 장차는 삽화와 경문을 구분하는 상하 계선의 아래에 위치한다. 각 장의 하단에는 한문으로 된 경문, 상단에는 경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삽화가 위치해 있다. 卷末에 기록된 學祖가 쓴 跋文¹²⁾에는 “이 책은 1485년(成宗 16)에 仁粹大妃가 주관하여 發願하였고, 唐本(中國本)을 본떠서 그림을 詳密하게 그려 넣고 본문을 楷正하게 써서 간행하였다”고 한다.¹³⁾

서울대 일석문고본과 호림박물관본은 인출된 면의 나무결과 책판의 마모상태로 보아 같은 책판에서 인출된 판본이나 서울대 일석문고본은 乙亥字 小字로 인출한 언해부분이 추가되어 있다.¹⁴⁾

12) (省略) 命工人效唐本詳密而鄙之楷正而寫之鏤而刊之以壽其傳 (省略).

13)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4장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함.

14) 언해부분은 한 면당 14行 17字에 관심부분은 上下黑口에 어미는 內向黑魚尾, 版心題는 ‘佛頂’이다.

	제10장	제7장	제14장	발문
일석 문고본				
호림 박물관본				

언해부분은 15세기에 간행된 다른 언해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자는 동국정운 한자음이 注音된 15세기 마지막 문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15세기 후반 당시 표기법의 특성이 보인다. ‘병’이나 ‘능’이 쓰이지 않고, ‘△’이나 ‘ㅇ’이 쓰이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¹⁵⁾

15) 金武峰,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5권(2008), 389.

3.2.1.2 解脫菴本

1561년(明宗 16) 平安道 祥原 解脫菴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왕실발원본 계열이다. 경문과 삽화, 언해부분까지 모두 왕실발원본 계열을 번각하였다. 다만 권말에 수록된 발문의 내용은 왕실발원본과 동일하나 왕실발원본의 한 면이 9行 18字의 2면으로 된 것에 비해 해탈암본의 한 면은 14行 20字의 1면으로 줄여서 재배열되었다.

施主는 羅繡 金千年 등 90여명, 化主 雲熙, 刻字 道成, 性崇, 仁氣 등이 간행에 참여하였고, ‘嘉靖四十年辛酉六月日 平安道祥原地大青山解脫菴開板’의 기록에 의해 明宗 16年(1561)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3.2.1.3 新光寺本

1711年(肅宗 37) 全羅道 淳昌 新光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전체적인 체계나 내용, 삽화의 구성은 왕실발원본 계열과 같으나 字體의 차이가 있으며, 도상의 구도는 왕실발원본과 같으나 세부적 표현은 간략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新光寺本(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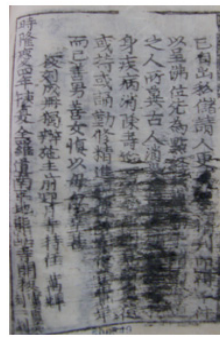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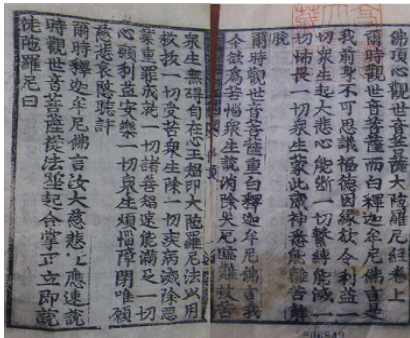
판식 형태는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0.8cm, 가로 15cm이며, 한 면은 8行 9字이다. 판심부분 중 어미는 內向2葉花紋黑魚尾, 版心題

는 ‘佛頂心經’이다. 劉閏德, 高愛先 외 17명의 施主秩과 刻手 斗心, 信宝, 友尙, 重玄, 畫員 聰眼, 書寫 崔瑞龍의 기록¹⁶⁾이 있어 이전에 내려오던 판본을 참고하여 崔瑞龍이 새로운 板下本을 쓰고, 聰眼이 삽화 등의 도상을 그려 새롭게 판각하였다.

3.2.2 독자적 간행본

3.2.2.1 熊帖寺本

1570년(宣祖 3) 全羅道 南原 熊帖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본문의 삽화 없이 한문만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板刻成冊 獨辦 施主 前迎月寺前住持 萬輝 / 時隆慶四年庚午 全羅道南平地熊帖寺開板’의 기록이 있어 板刻과 成冊은 獨辦, 施主는 迎月寺의 住持였던 萬輝가 담당하였다.



<그림 2> 熊帖寺本(1570) (高麗大圖書館 所藏)

판식 형태는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界線이 있다.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17.1cm, 가로 10.7cm이고, 한 면은 8行 16字이다. 판심부분 중 어미는 內向黑魚尾, 版心題는 ‘佛頂’이다.

16) 施主秩 柳氏閏德, 高氏愛先, 通政法敏, 通政先友, 通政智元, 元敏, 信岑, 淳衍, 別將 吳千守, 李得生, 敏英, 先戒, 海宗, 贊云, 法主, 連香, 日先, 性選, 崔奉 / 刻手秩 信宝, 友尙, 重玄 / 畫員 聰眼 / 書寫 崔瑞龍 / 化主 海云.

3.2.2.2 奉佛庵本

1631년(仁祖 9) 慶尙道 尙州 奉佛庵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卷首에는 水月觀音道와 位牌, 韋太天圖의 도상이 있으며 본문은 삽화 없이 한문으로 된 경문만 수록되었다. 經文은 한면에 8行 16字의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어 판각하였으나 언해 부분은 왕실발원본의 언해본에 수록된 자체인 乙亥字本 小字 계열을 번각하였다. 卷末에는 1630년(宣祖 8) 玉井이 쓴 跋文과 ‘崇禎四年辛未四月日刊 留于慶尙道尙州牧地奉佛庵’의 刊記와 性安, 道京, 金千의 刻手와 黃氏, 僉知 李景男 외 17명이 참여한 施主秩이 있다.

판식 형태는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19.6cm, 가로 14.9cm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판심부분 중 어미는 內向1-2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佛頂’이다

3.2.2.3 梵魚寺本

1642년(仁祖 20) 慶尙道 東萊 梵魚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삽화가 없으며, 한문의 경문으로만 되어 있다. 책의 맨 앞에 蓮花 위에 앉아 있는 觀音菩薩을 묘사한 水月觀音圖가 위치하고 있다. 卷末에는 ‘崇禎十七年壬午孟夏 東萊地金井山梵魚寺開板’¹⁷⁾의 간기가 있어 1642년(仁祖 20)에 梵魚寺에서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跋文의 기록에 의하면 “이 陀羅尼는 敬悟道人이 發願하여 널리 유통시키고자 1,000여권을 찍었다. 刻手의 임무는 瑞旭道人에게 請하여 판각하게 하였고, 그림과 梵字는 山人 定惠와 處安이 담당하였다”¹⁸⁾고 한다. 跋文의 뒤에는 刻字를 담당한 瑞旭 比丘 등 간행참여자 명단이 기록¹⁹⁾되어 있다.

17) 刊記에 나타난 ‘十七年’은 ‘十五年’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18) (省略) 敬悟道人自少常誦念持且切心發願廣布流通盡傾儲手刊刻即印千餘卷勸他念誦是功德何可量哉瑞旭道人功德刻山人定惠書于梵字山人處安 (省略).

19) 刻字 瑞旭 比丘 / 發願開刊 敬悟 道人 / 施主秩 三綱 一應 / 印經大施主 金益城 兩主



<그림 3> 梵魚寺本(1642) (東國大圖書館 所藏)

판식 형태는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으며,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19cm, 가로 15cm이고, 한 면은 9行 16字이다. 판심부분 중 어미는 內向1葉花紋黑魚尾와 가끔 2葉花紋魚尾도 보이며, 版心題가 없이 張次와 魚尾만 새겨져 있다.

3.2.2.4 寶晶寺本

1876년(高宗 13) 京畿道 寶晶寺에서 인출된 木活字本으로, 경문에 모두 음역을 달았다. 부록으로 ‘佛說救護身命經’을 추가시켰다.

龍岡山翁이 쓴 跋文에는 “『佛頂心陀羅尼經』과 『佛說救護身命經』은 모든 중생의 法으로, 受持讀誦하기 위하여 100권을 인출하여 널리 퍼뜨려 유통시키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京畿右道楊州天摩山寶晶寺印布’의 印出記와 ‘諺文書寫清信女丁酉生白氏善德心’이라 筆寫되어 한글 부분의 板下本 글씨는 白氏가 쓴 것을 알 수 있다. 판식 형태는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16.5cm, 가로 10.3cm이며, 한 면은 7行 14字이다. 판심부분 중 魚尾는 上下向白魚尾, 版心題는 ‘陀羅尼經’이다.

/ 印經大施主 李玉祥 兩主 / 供養大施主 金松立 兩主, 閔召史 兩主, 曹大董 兩主, 李白從 兩主, 妙玄 保休, 文哲比丘, 一國都大禪師覺性比丘 / 緣化秩 / 供養主 性峻比丘, 彥明比丘 / 勸化 敬悟比丘.

3.2.2.5 三聖菴本

1881년(高宗 18) 三聖菴에서 板刻한 것을 1908년에 인출하였다.

책의 구성은 맨 처음에 變相圖와 位牌, 序文, 佛頂心姥陀羅尼經啓請, 佛頂心陀羅尼經 上中下卷에 이어 1908년 諡庵 智雲이 쓴 발문이 있다. 실담문의 경우 한글 음역을 기록하였다.

卷下の 卷尾題 下段에는 ‘光緒七年辛巳閏七月日 三角山三聖菴藏經閣板’의 原刊記에 이어 跋文의 좌측 行의 여백에는 ‘隆熙二年戊申冬東庵居士姜在喜印施五百卷’의 새로 새긴 木記가 있어 1881년 三聖菴에서 새긴 것을 1908년에 姜在喜의 지원으로 500부를 찍어 배포하였다.

판식 형태는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半郭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16.6cm, 가로 11.2cm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판심부분 중 어미는 上下向黑魚尾에 ‘姥陀羅尼經’의 版心題와 張次가 있다. 卷首書名은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表紙書名은 ‘佛頂心姥陀羅尼經’이다.

3.2.3 『諸眞言集』에 수록된 『불정심다라니경』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은 여러 가지 진언을 모아 편성한 『諸眞言集』에 수록되어 있다. 『제진언집』은 초간본인 安心寺에서 간행된 이후 神興寺, 佛影臺, 萬淵寺, 望月寺에서도 간행되었다. 이 중 安心寺本(1569)과 안심사본 계열의 번각본인 神興寺本(1658)에 觀音菩薩圖와 韋太天圖가 있다.

版本	版式形態
安心寺本(1569)	四周單邊, 18.5×13.5cm, 有界, 9行17字, 內向2葉花紋魚尾
神興寺本(1658)	四周單邊, 17.9×13.6cm, 有界, 9行17字, 內向2葉花紋魚尾
佛影臺本(1688)	四周單邊, 19.0×14.4cm, 有界, 9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四周單邊, 19.2×14.2cm, 有界, 9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萬淵寺本(1777)	四周單邊, 19.4×14.4cm, 有界, 9行17字, 上下向2葉花紋黑魚尾
望月寺本(1800)	四周雙邊, 23.0×16.5cm, 有界, 10行20字, 內向黑魚尾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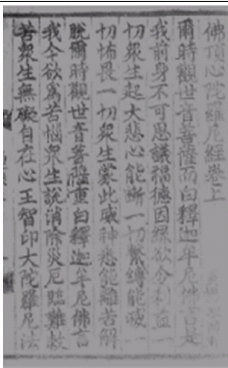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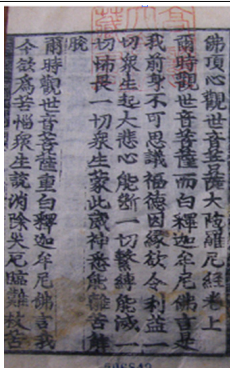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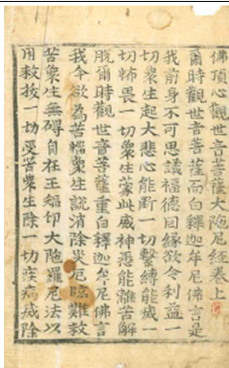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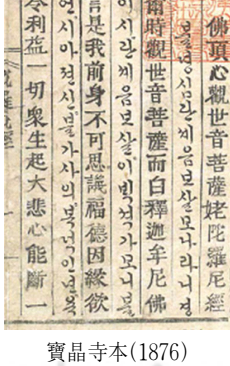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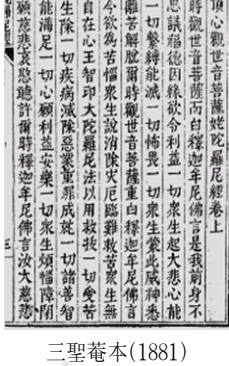


<그림 4> 『諸眞言集』 수록 『불정심다라니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은 크게 왕실발원본(1485)과 解脫菴本(1561)을 포함하는 왕실발원본 계열, 기타 한문 경문이나 언해 또는 음역본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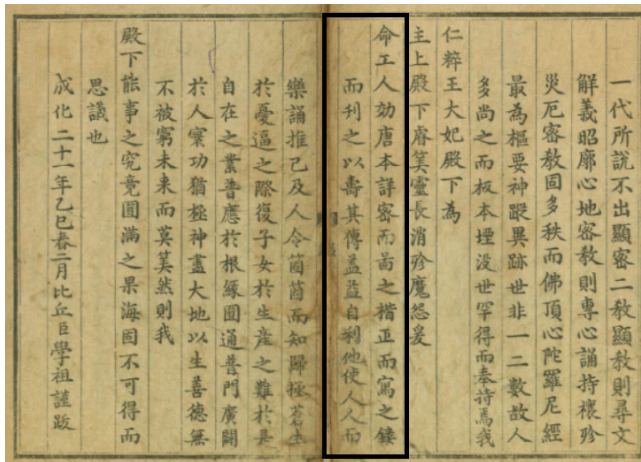
<표 2> 『불정심다라니경』의 계열별 비교

분류	판본		간년	행/자	삽화	위패	수월 관음도	위태천도	설법도
왕실 발원	원본	湖林本	1485	8/9	○	○	○	○	×
		一石文庫本		8/9	○	○	○	○	×
	번각	解脫菴本	1561	8/9	○	○	○	○	×
	변형	新光寺本	1711	8/9	○	○	○	○	×
독자 간행	熊岾寺本(한문)		1570	8/16	×	○	○	○	×
	奉佛庵本(한문)		1631	8/16	×	○	○	○	×
	梵魚寺本(한문)		1642	9/16	×	×	○	×	×
	寶品寺本(음역)		1876	7/14	×	○	○	○	×
	三聖菴本(부분음역)		1881	10/20	×	○	×	×	○
기타	諸眞言集	安心寺本	1569				○	○	
		新興寺本	1658				○	○	

		
王室發願本(호림본)	王室發願本(서울대본)	解脫菴本(1561)
		
熊帖寺本(1570)	奉佛庵本(1631)	梵魚寺本(1642)
		
新光寺本(1711)	寶晶寺本(1876)	三聖菴本(1881)

4. 왕실발원본과 성화본의 비교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1485년에 간행된 왕실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의 권말에 수록된 學祖²⁰⁾의 발문에는 『불정심다라니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행하고자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²¹⁾ 이 중 “命工人效唐本詳密而圖之楷正而寫之鏤而刊之以壽其傳”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을 끈다.



<그림 5> 왕실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 도상 관련 기록

20) 선종의 승려로 세조의 신임으로 많은 불경간행사업과 사찰중수를 담당하였다.

21) “일대에 설하신 바는 顯密 두 교를 벗어나지 않았다. 현교는 문자를 살펴 뜻을 이해하여 마음의 바깥을 밝히는 것이며, 밀교는 마음으로 독송하고 지니고 다녀 災厄이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밀교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불정심다라니경』이 가장 중요하여 그 신기하고 영묘한 자취와 기이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책을) 숭상하였으나 그 판본이 없어져 세상 사람들이 구해서 지니고 다니기 힘든 지경이다. (그러므로) 인수왕대비 전하께서 주상전하를 위하여 靈長의 헤아림으로 魔怨을 없애기 위해 工人에게 명하여 唐本을 본떠서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체를 바르게 필사하여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도록 했으니 스스로에게 득이 되게 하고 다른 이들도 이롭게 하고자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즐겨 읽게 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게 하고 개개인이 돌아갈 바를 알고, 백성을 질병과 궁핍한 지경에서 없애게 하고, 출산의 어려움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工人에게 命하여 唐本(중국책)을 본떠서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 넣고, 본문의 글씨체를 바르게 필사하여 새기고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문과 도상은 唐本, 즉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을 참고하였다. 書寫의 방법으로는 중국본을 똑같이 모방하거나 뒤집어 새긴 것이 아니라 ‘본받아’ 내지는 ‘본떠서’의 의미인 ‘效’로 표기하여 다시 경문과 도상의 板下本을 만들어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왕실발원본과 고관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화본 『불정심다라니경』의 형태적 특징과 도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1 형태적 특징

성화본 『불정심다라니경』은 1面 4折의 절첩본 형태로, 경문과 삽화는 총 17매의 목판에 걸쳐 새겨져 있다.

절첩의 크기는 세로 45.2cm, 가로 16.0cm이며, 표지에는 세로 26.0cm, 가로 5.0cm의 題籤이 붙어져 있다. 제첩 위에는 ‘佛頂心陀羅尼經’의 서명이 목서로 표기되었다. 본문의 구성은 상단에는 경문을 도상화한 삽화가 있으며, 하단에는 한문으로 된 경문이 실려 있다. 또 각 경문에는 원형의 방점이 찍혀 있다.

판식형태는 邊欄은 上下雙邊이고, 全郭을 기준으로 세로 34.0cm, 가로 64.5cm이다. 界線은 없으며 全葉 20行 9字이다. 이 중 삽화의 크기는 세로 11.5-11.7cm, 가로 64.5cm로 나타나며, 경문의 크기는 세로 22.7-8cm, 가로 64.5cm이다. 경문의 세로 길이가 삽화의 세로 길이보다 약 2배쯤 된다.

張次는 대부분 5行과 6行 사이에 보이고, 장차의 하단에는 版心題인 ‘佛頂’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성화본(上), 왕실발원본(下)의 권수 부분

성화본과 비교하여 왕실발원본은 全郭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 15.0cm, 가로 42.0cm이다. 또 한 행마다 9자로 배자되어 성화본과 동일하다. 이 중 삽화 부분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6.5cm, 가로 42.0cm이며, 經文의 크기는 세로 8.5cm, 가로 42.0cm로 삽화와 경문의 상하간 길이가 비슷하다. 성화본에 비하면 삽화와 경문의 크기가 축소되어 새긴 책판의 매수가 성화본보다 5판이나 늘어난 22매이다.

<표 3> 성화본, 왕실발원본의 비교

區分	成化本	王室發源本
刊年	1477년	1485년
板數(삽화)	17枚	22枚
裝幀	折帖(1面 4折)	線裝
全郭크기	34×64.5cm	15.0×42.0cm
界線	無界	有界
목판 1매당 삽화크기	11.5-7×64.5cm	6.5×42.0cm
목판 1매당 경문크기	22.7-8×64.5cm	8.5×42.0cm
行字數(全葉)	20行 9字	16行 9字

4.2 도상

4.2.1 수월관음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왕실발원본은 중국본의 경문과 도상을 모방하여 판화본을 만들어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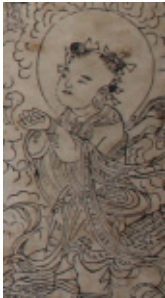
성화본과 왕실발원본에 수록된 전체적인 도상의 유형과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수월관음도가 있으며 수월관음도의 옆에는 위패가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經文의 상단에는 삽화가 있으며, 권하가 끝나는 부분에는 위태천도가 실려 있다. 먼저 성화본 수월관음도의 도상의 구도를 보면, 蓮花座 위에 앉아 있는 관세음보살의 뒤쪽에는 善財童子가 聽聞을 구하고, 앞쪽에는 善男子와 善女人이 쭈그려 앉아 合掌을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앞에는 버들가지가 꽃힌 정병이 놓여 있고, 중앙의 상단에는 3개의 산봉우리가 위치하여, 그 사이에는 새 한마리가 날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韋太天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공간에는 구름문양이 뽕뽕하게 채워져 있다.

수월관음도의 좌측에 있는 위패에는 좌우와 기둥에 용무늬와 구름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成化十三年(1477)四月二十六日印施’의 牌記가 있다.

왕실발원본의 수월관음도는 도상의 크기에 있어 성화본을 축약한 형태이지만 한 틀 안에서 도상의 전체적인 구도나 형식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관세음보살과 선재동자, 선남자선여인 등의 인물의 표현과 기타 사물의 표현과 3개의 산봉우리, 새의 표현이나 배경은 성화본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성화본(上)과 왕실발원본(下)의 수월관음도

구분	관세음보살	선재동자	선남자 선여인
왕실 발원본			
성화본			
구분	정병	산	버드나무
왕실 발원본			
성화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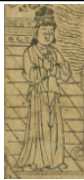
<그림 8> 왕실발원본과 성화본의 수월관음도 세부 표현 비교

4.2.2 삽화

성화본 『불정심다라니경』의 삽화는 불보살, 인물이나 사물, 건물 등의 도상이 크고 여유롭게 그려진 것에 비하여 왕실발원본의 삽화는 축소·변형된 새로운 판화본을 만들어 판각하였기 때문에 성화본보다는 전체적인 규모가 작다.

그러나 왕실발원본의 삽화를 보면 삽화의 전체적인 도상의 구성과 구도, 도상의 위치까지 같으며,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등 도상의 표현이 성화본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선남자 선여인, 관인, 여인, 서사자, 백정 등 인물의 행동 모습과 표현, 관복, 관모 등의 세부적인 표현 및 건물의 구조나 위치 등의 표현에 있어 대부분 성화본의 도상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화본에 비해 왕실발원본은 도상의 크기와 표현에 있어 축소를 통한 약간의 변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도나 세부 표현은 성화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구분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나한	중생
왕실 발원본				
성화본				
	서사자	백정	선녀인	임부
왕실 발원본				
성화본				
	서사자	관인	여인	관인
왕실 발원본				
성화본				

<그림 9> 왕실발원본과 성화본의 인물 표현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왕실 발원본		
성화본		
왕실 발원본		
성화본		
왕실 발원본		
성화본		

<그림 10> 왕실발원본과 성화본의 건물 표현

4.2.3 郭 안의 한문 기록

삼화에는 목판 1매에 적게는 1개, 많게는 3-4개의 한문 기록이 사각형의 郭 안에 표기되어 있다. 표기된 글자수는 최소 4자에서 최대 10여자 이상까지 기록하였다. 권차별로 보면 卷上은 23곳, 卷中은 11곳, 卷下는 20곳이다. 이것은 삼화의 내용을 축약하거나 사물이나 장소를 표기하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圖解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성화본과 왕실발원본의 郭 안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권하의 <관세음보살이 스님이 되어 물위에 있는 夜叉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에서 성화본은 ‘觀音神通_左指化夜叉沈水處’, 왕실발원본은 ‘觀音神通_力指化夜叉沈水處’로 한 글자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제외한 郭 안의 기록은 모두 일치하였다.

구분	郭 안의 기록
권상 (23)	觀音菩薩白佛 菩薩求一切衆生苦 從法座起說陀羅尼 天雨寶花續粉而下 善男善女供養此經 造罪殺生死入地獄 阿鼻地獄 書寫受持處 誦經人臨命終衆聖來迎 霞光滿室摩頂授記 女人厭女人身 轉女成男坐寶蓮花 百千姝女常隨快樂 口舌競生 錢財毛散 疾病纏身 誦經之人善神衛護 獨坐靜處誦經 佛見目前 香花供養 誦經人常能見佛 觀音菩薩化現阿難形相
권중 (11)	女人身懷六甲惡鬼爲作障難 朱書陀羅尼處 吞朱書秘字推兒 兒棄向水處 朱書秘字吞之治病 命終承此經力即得往生 燒經作灰 面奉彌陀 取西方淨土 供養此經衣食充足 鬼神惱亂供養此經悉皆奔走
권하 (20)	*觀音化居士救衆生疾病 臥病去處 求醫去處 勸人寫經 *抄寫經所 疾病除瘥 鬼使傳報長者寫經延年九十 婦人常持此經 此婦人前生冤家託陰胎中欲害其母 婦人生不亡兒棄向水處 婦人前生冤家三度欲害其母感得觀音菩薩化作一僧現處 觀音神通力指化夜叉深水處 婦人歸嫁發心造經 通經之人隨處有金剛神衛護 官人於普光寺借錢 普光禪寺 官人與和尚同將一布袋盛和尚拋放水池中 官人到懷州府所忽見和尚在廳上坐 懷州縣廳 官人發心印經後得加官任懷州刺史

이와 같이 왕실발원본의 삼화는 성화본에 비해 수월관음도와 삼화의 전체적인 구도나 구성, 인물과 건물, 의복의 표현, 郭 안의 기록 등 여러 점에서 같거나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해보면 성화본과 왕실발원본은 간행시기의 차이가 10년 이내로 근접하고, 형태적으로 보면 9자 배열로 경문의 배열이 같다. 또한 도상의 구성과 구도뿐만 아니라 표현양식이 유사하고 郭 안의 기록이 일치하는 점 등은 왕실발원본의 발문에서 언급한 ‘唐本’이 바로 성화본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왕실발원본은 성화본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방법으로는 성화본을 축소·변형하여 당대 유명한 궁중화원과 서사자가 참여하여 새로운 판화본을 만들어 판각하고 간행하였던 것이다.

5. 신광사본 삽화의 특징

『불정심다라니경』에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王室發願本(1485)과 解脫菴本(1561), 新光寺本(1711) 등이다.

해탈암본은 왕실발원본이나 왕실발원본 계열을 번각한 판본으로 번각으로 인한 자체가 커졌고, 모양이 섬세하지 않는 차이는 있지만 도상의 구조나 표현 등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약 150년 후에 간행된 신광사본은 왕실발원본 계열을 번각한 것이 아니라 왕실발원본 계열의 도상을 모방하여 경문과 삽화를 포함한 도상의 판화본을 새롭게 만들어 간행하였다. 이 때 畫員으로는 聰眼, 書寫는 崔瑞龍이라는 인물이 담당하였다.

신광사본은 왕실발원본과 비교해 도상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각 도상의 테두리 부분을 검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보살, 書寫者, 관인, 여인 등 인물의 표현에 있어 의복이나 복장의 테두리 부분을 양각으로 판각하여 뚜렷하게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도상의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 신광사본은 왕실발원본에 비하여 많이 간략화된 것이다. 의복의 표현이나, 사물, 나무, 건물 등 도상의 전반적인 구도는 같으나 도상의 세부 표현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왕실발원본은

전체적으로 미세한 선이 살아있고, 빈틈이 없이 정밀하게 표현되었다면 신광사본은 선이 투박하며 도상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많다.

건물과 인물 사이에 여백, 산과 하늘의 표현, 건물 안의 표현 등에 있어서도 왕실발원본은 구름 등의 문양을 채워 넣었으나 신광사본은 여백으로 남긴 부분도 있다. 郭 안의 기록은 왕실발원본의 문자와 모두 동일하나 제3장에 있는 ‘天雨寶花續粉而下’, ‘善男善女供養此經’ 제4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阿鼻地獄’ 같은 경우에는 신광사본에서는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구분	석가모니	관음보살	백의관음	선남자
성화본				
왕실 발원본				
신광사본				

<그림 11> 테두리선 표현의 예



<그림 12> 간략한 여백 표현의 예(王: 왕실발원본, 新: 신광사본)

6. 결 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전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별 계열과 삽화를 중심으로 한 도상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왕실발원본(1485)의 발문에 “唐本을 본땀다”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화본(1477)과의 비교를 통하여 두 판본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도상의 표현에 있어 왕실발원본과 차이가 있는 신광사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 『불정심다라니경』은 밀교신앙의 성행과 함께 권력층 위주의 호신용으로 간행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는 왕실에서 간행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고려시대 판본으로 고려고종연간에 간행된 崔忠獻 3父子의 기록이 있는 소자본, 崔瑀 기록이 있는 소자본, 1306년에 간행된 高敞郡夫人 吳氏의 기록이 있는 판본이 전해진다. 조선시대 판본으로는 王室發源本(1485), 解脫菴本(1561), 熊帖寺本(1570), 奉佛庵本(1631), 梵魚寺本(1642), 新光寺本(1711), 寶晶寺本(1871), 三聖菴本(1881) 등이 간행되어 전해진다.

2. 조선시대 판본의 판본별 계열을 보면, 크게 본문의 상단에 삽화, 하단에 경문이 수록된 왕실발원본(1485)과 왕실발원본 또는 같은 계열을 번각한 해탈암본(1561)이 같은 계열의 판본이며, 기타 熊帖寺本(1570), 奉佛庵本(1631), 梵魚寺本(1642), 寶晶寺本(1871), 三聖菴本(1881)은 삽화가 없이 한문이나 음역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간행되었다.

3. 왕실발원본(1485)에는 “唐本(중국책)을 본떠서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 넣어 간행하였다”는 발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화본(1477)과 왕실발원본의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성화본과 왕실발원본의 상단에는 삽화, 하단에는 경문이 실려 있어 본문의 구성이 동일하고, 하단의 경문의 배열이 9字 배열로 동일하다. 또한 도상의 구성과 구도, 도상의 세부적인 표현이 유사하고, 특히 郭 안에 경문 또는 도상을 요약하는 한자 표기가 일치하였다. 이러한 두 판본간의 상호 유사성과 두 판본간의 간행시기가 10년 이내로 근접한 점, 현전 성화본 외에 중국 간행의 어느 판본에서도 이러한 형태적 특징과 도상의 형태가 비슷한 판본이 없다는 점 등은 1485년 간행된 왕실발원본의 발문에서 언급한 ‘唐本을 본떴다’라는 기록에서의 ‘唐本’을 1477년 간행된 成化本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즉, 왕실발원본은 성화본을 그대로 번각한 것이 아니라 모방하여 성화본보다 축소·변형하여 경문과 도상의 새로운 판화본을 만들어 판각하고 간행하였다.

4. 신광사본(1711)은 왕실발원본과 비교하여 삽화의 구성과 구도, 경문의 배열 등은 같지만 수록된 도상은 왕실발원본보다 더욱 간략하게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테두리부분을 검게 한 의복 표현, 인물이나 사물, 건물 표현이 간소화되었다. 또한 여백의 표현은 왕실발원본보다 뾰뾰하지 않으며 간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에 내려오던 왕실발원본 계열을 모방하여 새로운 판하본을 만들어 도상을 간략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佛頂心陀羅尼經』 成化本(1477).

『佛頂心陀羅尼經』 王室發願本(1485).

『佛頂心陀羅尼經』 新光寺本(1711).

周燕編. 『中國版畫史圖錄』.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8.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김무봉. “『佛頂心陀羅尼經諺解』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第45輯(2008).

남권희. “韓國記錄文化에 나타난 眞言의 流通.” 『密敎學報』 第7輯(2005), 109-110.

박도화. “15세기 후반기 王室發願 版畫: 貞熹大王大妃 發願本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第19輯(2002).

李逢春. “朝鮮前期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제5집(한국불교학회, 1980), 62-63.

洪潤植. “朝鮮時代眞言集의 刊行과 儀式的 密敎化.” 『韓國佛敎史의 研究』. 서울: 敎文社, 1988.

